

동학의 한울님과 불교의 무아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한 성 자

동국대 BK21 연구교수

〈요 약〉

동학은 수운의 체험을 통해 확인된 한울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다. 한울님은 절대자로서 인간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이며 절대타자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동학은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이다. 한편 동학의 주문에 대한 수운의 설명을 통해 나타나는 한울님의 존재는 지기로서 인간의 안에는 신령으로 밖에는 기화로서 작용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한울님의 기운은 텅 비어서 혼자서는 작용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힘을 발휘하여 인간과 함께 작용하는 인간 내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기로서 작용하는 한울님에 있어서는 동학과 불교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신령과 기화를 각각 불교의 무아사상과 연기사상에 대비시켜 그 유사성을 조명해 보았다. 신령과 기화를 잘 알아서 각자위심을 극복하는 동학과 무아와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불교는 탐욕과 이기심의 극복이라는 목표에서 서로 근접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행에 있어서도 마음을 닦는 공부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두 종교는 서로 유사성을 보인다.

핵심 주제어 : 한울님, 절대타자, 지기, 신령, 기화, 무아, 연기, 각자위심

I. 들어가는 말

동학은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가 한울님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이다.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어져서 무슨 병인지 집중(執症)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수운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상제, 즉 한울님

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영부와 주문을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가르쳐서 한울님을 위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수운에게 나타난 한울님은 종교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미노제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신은 신비스러운 가운데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절대타자로서 나타난다.¹⁾ 신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 힘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그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거룩한 그 힘에 매혹되어 한없는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유일신을 믿는 여러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기독교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느님이 나타났을 때, 이슬람교에서 무하마드에게 천사 가브리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시크교에서 교주인 나나크가 진리의 이름을 알게 됐을 때 등도 모두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세워진 동학은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와는 크게 다르다. 수운의 경험이 절대타자와의 만남이라는 누미노제적인 체험이었다면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자신과 타자와의 구별이 없는 일원적인 신비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도 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신은 세계를 창조한 절대자가 아니라 다만 세계 안의 한 존재일 뿐이며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이 쌓아온 업의 결과로서 신이 되었을 뿐 그 업이 다하면 다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나’ 또는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가능하며 이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존재보다 수행하기 좋은 조건에 놓여 있으며 부처님이 보여 주었듯이 부단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 거기에 신의 은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붓다라고 하더라도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뿐 깨달음 자체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자기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와 절대타자로서의 한울님을 모시는 동학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학의 한울님에게서 우리는 절대타자로서의 위상과는 어긋나는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울님이 ‘지기(至氣)’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지극한 기운으로서 작용하는 한울님은 혼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통해서 작용하며 또한 그 뜻을 펼쳐줄 마땅한 인간이 없다면 한울님이라도 아무런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덕 있는 인간을 통해야 한울님도 비로소 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吾心卽汝心)’이라는 『논학문』의 잘 알려진 구절은 한울님이 허송세월하다가 비로소 자신의 뜻을 펼쳐줄 수 있는 인간, 즉 수운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²⁾ 한울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작

1) 루돌프 오토, *Das Heilige*, 김희성역, 『성스러움의 의미』 (서울: 분도출판사, 1991), 79쪽.

2) 이상학, 「도올은 종교의 참 메시지 모르는 철부지: 김용옥교수 논어강좌 비판」, 『월간중앙』 2001년 3월호.

용과 능력을 발휘 할 때 그러한 한울님은 인간 밖에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마음대로 은총을 내리고 또 때로는 벌을 내리는 절대자로서의 신과는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기(至氣)가 인간 안에 신령으로서 작용하면서 각자가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各自爲心)을 버리고 본래의 마음을 지켜 기운을 바르게 한다(守心正氣)라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자아와 타자의 구별이 없는 무아의 깨달음 속에서 욕망과 집착을 벗어나게 되는 일원적인 불교의 깨달음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초월적인 절대자로서가 아니라 무형의 지기로써 인간과 세상에 작용하는 한울님에 있어서는 불교의 무아사상과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동학의 한울님과 불교의 무아사상이 가지는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II. 동학의 한울님

1. 초월적인 절대자로서의 한울님

동학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운과 한울님의 만남이 될 것이다. 앞에 인용했던 바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울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수운은 한울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물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³⁾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운은 ‘한울님’이라는 최고의 존재를 실재하는 신으로서 소리를 통해서 만났다. 소리를 통해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 받는 것은 절대자를 믿는 다른 유일신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모세, 예수, 사울, 무하마드 등이 모두 소리를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예를 들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⁴⁾ 예수는 침례 받은 직후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으며⁵⁾ 다마스쿠스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사

3) 『동경대전』, 『포덕문』. <http://www.chondogyo.or.kr/book/book1.html>.

4) 『구약성경』, 『탈출기』, 3:1-4:17.

5) 『신약성경』, 『마태복음』, 3:16-17.

울에게는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예수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⁶⁾ 특히 이슬람교의 무하마드의 경우에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⁷⁾ 라는 메시지를 들은 것 외에도 수운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두 사람 모두 계시 받기 전에 명상수행을 열심히 했으며 계시 또한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되어 수운의 경우에는 1년 정도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무하마드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무려 22년 동안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⁸⁾ 이렇게 계시 받은 것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이며 천도교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도 한울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무궁 무궁한 도를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⁹⁾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에 따라 수운이 전도한 것을 후에 최시형이 모아서 펴낸 것이다. 이와 같이 신과 인간과의 만남은 주요 종교에 있어서 절대적 강자와 절대적 약자의 관계라는 누미노제적인 체험 속에서 특히 소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 신은 정체성이 전혀 다른 절대자로서 인간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신의 선택은 오로지 신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체험자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체험자 자신은 계시를 내리는 신의 소리를 듣게 되면 모두 놀라고 공포에 떨며 계시 받은 내용을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선택한 신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모세는 자신을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 선택한 하느님의 결정에 대해 말썽씨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이를 보내십시오”라고 거둬 사양하여 하느님을 화나게 했으며 결국 하느님은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그를 돕도록 했다.¹⁰⁾ 무하마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스스로의 계시 체험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부인의 격려를 통해 명상을 계속한 후에야 확신을 얻어 꾸란의 계송들을 읊어낼 수 있었다.¹¹⁾ 마찬가지로 수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천도를 받고 나서 잘나지도 못하고 재질도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천도를 받은 것인지 도무지 믿지 못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저생령 많은사람 사람없어 이러한가 /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역시 다했던가 / 윤회같이 돌린

6) 『신약성경』, 『사도행전』, 9:1-19.

7)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이슬람력 1422년), 96: 1. <http://www.quran.or.kr/Korean%20Quran.pdf>.

8) Thomas A. Robinson & Hillary Rodrigues, *World Religions: A Guide to the Essential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6), p. 116.

9) 『동경대전』, 『포덕문』: “及汝無窮無窮之道 修而煉之..” 천도교에서는 이 구절을 “너는 무궁 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라고 번역했으나 일부에서는 “너에게 무궁 무궁한 도를 줄 것이니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여기서는 후자를 택하였다.

10) 『구약성경』, 『탈출기』, 4:10-17.

11) Thomas A. Robinson & Hillary Rodrigues, *World Religions: A Guide to the Essential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6), p. 116.

운수 내가어찌 받았으며 / 역조창생 많은사람 내가어찌 높았으며 / 일세상 없는사람 내가 어찌 있었
던고 / 아마도 이내일은 잠자다가 얻었던가 / 꿈꾸다가 받았던가 측량치 못할러라”¹²⁾

이에 대해 한울님께서는 이 땅이 생겨난 후 어떠한 사심도 없이 자호이름까지 고치고
불출산외를 맹세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 드리고 진리를 탐구한 사람은 수운이 처음
이었다고 하면서 수운이 선택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준 후에 오로지 정심수도 할 것
을 명한다.

“이말저말 봉등해도 / 내가알지 네가알까 그런생각 두지말고 / 정심수도 하였어라 시킨대로 시행
해서 / 차차차차 가르치면 무궁조화 다던지고 / 포덕천하 할것이니 차제도법 그뿐일세 / 법을정코 글
을지어 입도한 세상사람 /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 될것이니 / 지상신선 내아니나”¹³⁾

이때 한울님의 선택을 받은 수운의 불안감과 수운을 선택한 한울님의 절대적 확신 사
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서 두 주체, 즉 수운이라는 자아와 그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한울님이라는 절대타자의 이질적인 두 주체를 구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수운은 한울님을 자신과는 정체성이 다른 별개의 존재로서 만난
것이고 따라서 후에 천도교의 핵심이 된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와 같은
사상은 한울님을 처음 접한 순간의 수운에게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불경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포덕의 과정에 있어서도 초월적 절대자로서의 한울님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천도
를 받은 후에 수운은 한울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영부를 태워 마셔보고 몸이 윤택해
지고 병이 나으므로 선약이라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시도록 하는데 어떤 경우
에는 낮고 어떤 경우에는 낮지 않으므로 그 이유를 살피게 된다. 그가 찾아낸 해답은
“정성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¹⁴⁾다는 것으로서 한울님에 대한 믿음과 지극한
정성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이 역시 신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지하는 종교
들에 있어서 신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공경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운은 “덕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에 있고 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
니”¹⁵⁾ 한울님께 열심히 정성드릴 것을 강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 보다는 한
울님에 대한 믿음과 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초월적인 절대자로서의 한울님의

12) 『용담유사』, 『교훈가』, <http://www.chondogyo.or.kr/book/book34.html>.

13) 같은 글.

14) 『동경대전』, 『포덕문』.

15) 위의 글, 『탄도유심급』.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신령과 기화를 통해 본 한울님

이제 절대타자로서의 한울님과 다른 또 다른 한울님의 모습을 보기로 하자. 동학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칠자(三七字) 즉 이십 일자로 이루어진 주문이다: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한울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은 이 스물 한자의 주문 가운데 수운은 ‘천(天)’자 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스무 글자의 뜻을 『논학문』에서 차례로 풀이하였다. 수운이 한울님을 가리키는 ‘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언어가 가지는 제약적이며 불완전한 속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울님이라는 불가해한 존재를 언어로서 설명하려고 했다면 한울님을 알기 쉽게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한울님이 아닌 것만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불가능한 시도 대신에 수운은 ‘지기(至氣)’와 ‘시천주(侍天主)’의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울님을 드러내는데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한울님의 모습은 앞에서 보았던 초월적인 절대자와는 다른 것이다.

먼저 ‘지기(至氣)’의 풀이를 보자: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허령(虛靈)이 창창하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 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 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원(渾元)한 한 기운(一氣)이요”

요약하면 지기는 결국 지극하며 혼용 원만한 하나의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 한울님과 지기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주문을 보면 ‘지기금지원위대강’ 즉 ‘지기가 지금 크게 강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나서 ‘시천주’, 즉 ‘한울님을 모신다’는 구절로 이어지므로 지기가 강림하는 것은 한울님을 모시는 것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기가 일에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초월적 절대신이 가지는 전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지기는 한울님의 기운으로서 초월적 절대신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러한 권능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령이 창창해서, 즉 텅 비고 신령해서 그런 권능이 나온다고 한 것이다. 또한 형상하기 어렵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결국 혼용 원만한 하나의 기운이라고 했으니 결국 지기는 텅 비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간섭할 수 있고 또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스로가 비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일에 간섭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인간 대 절대타자라는 이원적 구도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포용하는 일원적 구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혼융한 하나의 기운이 되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지극하고 혼융한 기운으로 작용하는 한울님의 권능은 한울님 혼자서 휘두르는 절대자의 권력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공동으로 발휘하는 힘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한울님에게도 필수적이다.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¹⁶⁾ 것이라고 한울님 자신이 수운에게 고백한 것처럼 한울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을 따라주는 덕 있는 인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업적을 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궁한 도를 전해 받았다고 해서 지극한 기운이 인간에 있어서 저절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해 받은 도를 잘 펼치려면 ‘시천주(侍天主)’ 즉 한울님 모시는 일을 잘 해야 한다. 과연 어떻게 모시는 것이 잘 모시는 것일까? 이에 대해 수운은 “시(侍)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¹⁷⁾이고 “주(主)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¹⁸⁾이라고 하였다. ‘시천주’는 한울님을 잘 모시는 것이니까 한울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텐데 막상 한울님 이야기는 없고 다만 안에 있는 신령과 밖에 있는 기화를 옮기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똑같이 섬기라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텅 비어서 그 자체로서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한울님이 이제 신령과 기화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라고 한 것은 한울님의 작용이 두 가지임을 말한 것으로서 사람의 안에 작용하는 한울님의 기운은 신령이고 사람의 밖에 작용하는 한울님의 기운은 기화이다.

‘시천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옮기지 않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수운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올바른 뜻을 찾아낼 수 있다. 삼칠자 주문의 풀이를 시작하기 직전에 수운은 자신이 받은 도의 이름을 천도(天道)라고 하면서 “우리 도는 무위이화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化)해나는 것”¹⁹⁾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시천주’의 풀이에 대비시켜 보면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신령을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은 기화를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신령과 기화를 각자가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며,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한울님을 잘 모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군자의 경우와 사계절의 어김없는 운용이다.

16) 위의 글, 『논학문』: “曰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敎人此法.”

17) 같은 글: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18) 같은 글: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19) 같은 글: 曰吾道無爲而化矣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敎 化出於自然之中也.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기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긋나니”²⁰⁾ 라고 할 때 군자의 마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안에 있는 신령을 잘 알아서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한다는 것은 밖의 기화에 올바르게 응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군자와는 달리 소인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겨서 그 안에 있는 신령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천명을 알지 못하고 또 밖의 기화에도 올바르게 응할 수가 없어서 결국 천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군자의 경우에서도 신령이 올바르게 작용함으로써 기화에도 잘 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기화의 작용은 무엇보다도 사계절의 운용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포덕문』의 시작에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밖에 ‘기화’로서 작용하는 한울님의 존재를 사시사철의 질서정연함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계절이 서로 함부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없고 그 차례가 바뀌는 일도 없는 것은 바로 한울님의 지기가 기화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화란 온 세계에 작용하는 지기의 조화를 말하며 천지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그대로 지기를 통한 한울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령과 기화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울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유신론의 신관에서 기대되는 인격적 신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한울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신령으로서 존재하는 한울님의 기운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밖에 기화로서 작용하고 있는 한울님의 기운에 잘 조화되도록 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수운의 제자로서 2대 교주가 된 최시형의 ‘시천주’에 대한 풀이에도 신령과 기화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안에 신령이 있다는 것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갓난아기의 마음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은 포태할 때에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하여 체를 이룬 것이니라. 그러므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과 ‘지기금지 원위대강’이라 한 것이 이것이니라.”²¹⁾

이것은 한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에 대한 묘사이다. 동학에서 보는 인간의 탄생은 절대 타자인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바탕이 되는 신령과 그에 응하는 기화의 공동작용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순간은 한 번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탄생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과정이며 또한 탄생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수운이 처음 한울님을 접

20) 같은 글: 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故 與天地合其德 小人之德 氣不正而心有移 故與天地違其命.

21) 『해월신사법설』, 『영부주문』, <http://www.chondogyo.or.kr/book/book3.html>.

할 때가 바로 그러한 순간으로서 “몸이 몹시 떨리면서 밖으로 접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천도교의 주문에서 ‘지기금지원위대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신령과 기화가 응하여 함께 작용하는 순간의 도래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 한울님은 절대타자로서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내재적인 성격을 가지며 수운 이후에 나타난 인시천(人是天)이나 인내천(人乃天)의 사상도 이를 바탕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불교에서 본 동학의 한울님

1. 신령과 무아사상

위에서 우리는 동학의 한울님이 수운에게 실제로 나타난 실재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영접됨으로써 인간을 통해서 권능을 드러내는 지극한 기운이기도 한 것을 보았다. 먼저 한울님이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불교의 무아사상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다. 즉 무아의 교리는 구체적으로 오온과 연기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든 무아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령과 기화로서 작용하는 한울님의 기운, 즉 지기에 있어서는 불교와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신령에 대해서는 무아사상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기화에 대해서는 연기법과의 유사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신령과 무아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무아의 가르침은 불교의 궁극적 진리로서 인간은 스스로를 다른 것과 구별되어 뚜렷이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로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 안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고 말한다.²²⁾ ‘나’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의 다섯 가지 모임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에 지나지 않으며 모여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하여 어떤 고정된 실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오온의 구성을 보면 색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수·상·행·식의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인 색에 근거해서 나머지 네 가지의 정신적인 요소들이 생긴다. 즉 색에 속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안·이·비·설·신·의)이 외부의 대상(색·성·향·미·촉) 및 내면의 대상(법=의식 안의 모든 대상, 또는 관념)과 접촉하게 되면 감각, 인식, 의지작용, 의식 등의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은 인간이 망상하듯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22) 이하 불교의 교리는 주로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 2nd and enlarged ed., (New York: Grove Press 1974) 참조.

매 순간의 접촉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이며 따라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도 인간에게는 없다. 인간의 의식이 감각기관과 외부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 것처럼 감각기관이 소멸하면, 즉 인간이 죽게 되면 결국 인간의 의식도 없어진다. 그러나 이때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온의 모임과 작용의 원동력이 되었던 생존을 향한 욕망의 기운은 오온이 해체된 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그 다음의 생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것은 연기법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인간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온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도록 하자.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아가 있다는 망상을 일으켜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망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작용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며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은 무아의 깨달음에 도달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의식 활동을 할 수 없는 동물 등의 존재는 당연히 이러한 지혜를 일으킬 수 없거니와 인간보다 수승하다고 할 수 있는 천상의 존재와 같은 경우에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원(願)이 일어나지 않아 결국 무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무아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학의 신령과의 연관성을 조명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신령과 무아개념이 모두 고정불변의 자아개념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그에 따른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동학의 한울님이 안에는 신령으로서 밖으로는 기화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 안에 한울님이 신령으로서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은 곧 한울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오.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너는 무궁 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²³⁾

여기에서 한울님이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고 한 것은 수운의 안에 한울님의 기운인 지기가 신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한울님과 수운이 별개의 실체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운이 자기 안에 지기를 받아들여 신령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어 이제 수운의 마음과 한울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것은 동학에서 각자위심(各自爲

23) 『동경대전』, 『논학문』. 曰吾心卽汝心也 人何知之 知天地而無知鬼神 鬼神者吾也 及汝無窮無窮之道 修而煉之 制其文教人 正其法布德則 令汝長生 昭然于天下矣.

心)이라고 부르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진 마음, 천리를 알고 천명을 따르는 마음을 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수운은 한울님으로부터 무궁한 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이는 불교에서 무아를 깨달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안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는 불교의 수행과 안에 있는 신령을 옅기지 않아서 한울님의 마음으로 ‘각자위심’을 벗어나는 동학의 수행은 수행의 인과(因果)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수행의 인을 보자면 불교의 무아 사상도 동학의 신령의 가르침도 결국 자아의 실체에 대한 강력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학의 신령에 있어서도 결국 한울님의 작용인 지기를 안에 모심으로써 신령이 작용하는 순간에 마음은 인간이라는 자아도 한울님이라는 절대타자도 존재하지 않는 일원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니 거기에는 어떤 자아개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작용하는 신령을 통해 밖의 ‘기화’에 응하게 되면 ‘무궁한 이 올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²⁴⁾라고 한 것과 같이 ‘나’는 개체의 울타리를 벗어나 ‘무궁한 나’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신령과 무아사상의 유사성에 이어서 이제 기화와 연기법에 있어서도 그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기화와 연기

오온의 분석이 인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아 사상에 이르는 것이었다면 연기법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역시 무아 사상에 도달한다. 오온이 작용을 멈추게 되면 즉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감각기관이 작동을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각기관과 외부대상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조건으로 생기는 의식도 역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때 몸과 마음이 작동을 멈추어도, 계속 생존하고자 하는 습기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부처님과 같이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의 생을 일으키게 된다. 즉 현재의 나를 이루는 오온을 결합시켰고 또 변화시키고 있는 힘의 원천인 유(有), 즉 존재에의 집착은 오온이 사라지고 나서도 멈추고 않고 다음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생존을 향한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가 열 두 개의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 후에도 남아 있는 생존에의 습기가(행·식) 색을 끌어 모아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고(명색·육입) 생명체는 감각기관을 통해 다시 외계를 접하면서 수상행식의 마음을 만들어 자아의식을 형성함으로써(촉·수) 이를 중심으로 다시 탐욕이 강화되

24) 『용담유사』, 『홍비가』.

어(에·취) 탐욕의 불길은 이 생명체가 없어져도 꺼지는 일이 없이 계속되어(유) 다시 무수한 생명체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생·노사) 탐욕의 원인이 되는 ‘나’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무명)이 움직임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 움직임 속에서 먼저 존재했던 생명체와 나중에 나온 생명체는 인과법에 따라 필연적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또한 전혀 다른 존재인데 왜냐하면 전과는 다른 감각기관을 가짐에 따라 전과는 다른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전과는 전혀 다른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난 생의 존재와 현재의 존재는 전혀 다른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과거에 있었던 생명체나 다음에 올 생명체는 모두 현재의 내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경계는 임시적으로만 세울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각 생명체의 안위는 결국 개별적 단위가 아니라 전 존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다른 인간들 및 세계와의 조화로운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인과법에 따라 상대적이며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세계를 이용하고 파괴한다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간과 외부 세계와의 조화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동학에서 인간의 안과 밖에 신령과 기화로서 존재하는 한울님을 통해서 세계가 조화롭게 운용되고 있다고 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신령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여 천명(天命)을 알고 이에 따라 밖의 기화에 응하여 천지와 조화를 이루어 천덕(天德)을 이룬다고 할 때 이는 연기법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신령을 옮기지 않아서 한울님의 마음으로 밖의 기화에 응하는 것과 무아와 연기법을 깨달아 나를 벗어나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 사이에서 어떤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3. 각자위심과 탐심의 극복을 위한 마음 공부

불교의 선종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듯이 불교의 가르침은 경전 공부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마음을 닦아 무아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찬가지로 동학의 수행도 마음을 닦아서 결국 각자위심을 극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동학의 수행법은 철저히 마음을 중심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하는 것으로서 수운은 그것이 쉬운 것임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울님에 대한 지극한 성·경·신(誠敬信)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규율이나 금기사항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 및 제자들에게 주는 글에서 수운은 자신을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책에 매

달려 알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한울님만 믿고 수도할 것을 당부한다.

해음없는 이것들이 날로 믿고 그러하나 / 나는 도시 믿지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 /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 말가 / 내 역시 바라기는 한울님만 전혀 믿고 /
 해몽 못한 너희들은 서책은 아주 폐코 / 수도하기 힘쓰기는 그도 또한 도덕이라 /
 문장이고 도덕이고 귀어허사 될까보다.²⁵⁾

수운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런 것은 한울님을 잘 모시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운이 제시한 수행법은 오로지 〈21자 주문〉, 또는 앞의 강령주문을 제외한 〈13자 주문〉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十三字 지극하면 萬卷詩書 무엇하며 / 心學이라 하였으니 不忘其意 하였어라. /
 賢人君子 될 것이니 道成立德 못미칠까 / 이같이 쉬운 도를 자포자기 하단말가.”²⁶⁾

주문을 지극히 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신령으로 존재하는 한울님을 잘 모셔서 자신의 천명을 아는 것으로서 이것은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말로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고 또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닭은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지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지가 있는 것 같지만 헛된 것”²⁷⁾을 수운은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던 것이다. “사람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사람이며 / 재질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재질이며 / 만단의야 두지마는 한울님이 정하시니 / 무가내라 할 길 없네”라고 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잘난 사람을 제치고 수운이 무극대도를 얻은 것은 그것이 말이나 글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논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글공부나 논리를 따져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운은 다만 21자의 주문을 지극히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행법을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다. 오로지 안의 신령을 잘 알아서 마음을 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울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수운에게 나타났던 것이고 또 해월을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던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날 성현은 뜻이 특별히 남다른 표준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한번 대선생님을 뵈옵고 마음공부를 한 뒤부터는, 비로소 별다른 사람이 아니요 다만 마음을 정하고 정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인줄 알았노라. 요순의 일을 행하고 공맹의 마음을 쓰면 누가 요순이 아니며 누가 공맹이 아니겠느냐.²⁸⁾

25) 『동경대전』, 『교훈가』.

26) 같은 글.

27) 『동경대전』, 『논학문』.

28) 『해월신사법설』, 『독공篤工』.

무극대도를 얻고 난 후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정성하라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을 신중히 살펴서 마음을 정하되 한번 작정한 뒤에는 오직 정성과 믿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정성과 믿음이여, 그 법칙이 멀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말로 이루어졌으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 하라. 내 지금 밝게 가르치니 어찌 미더운 말이 아니겠는가. 공경하고 정성들여 가르치는 말을 어기지 말지어다.” 29)

이상의 동학의 수행을 불교의 수행에 견주어 본다면 불교의 무아사상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무아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체득해서 마음에서 탐심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점에 있어서도 지극한 정성과 믿음을 강조하는 동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사선(四禪)과 사무색정(四無色定)의 명상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아의 지해도 모든 분별작용을 벗어나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지극한 정성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IV. 결 론

동학과 불교는 기본개념과 교리 체계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종교이다. 동학은 교조인 수운에게 나타났던 실재하는 한울님, 초월적인 절대타자를 믿는 종교이며 불교는 신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개념과 체계상의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서 그 실제 내용을 보면 동학의 한울님과 불교의 무아사상이 서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울님은 혼자서는 별다른 공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서 인간이 자기 안에 신령으로서 존재하는 한울님의 기운, 즉 지기를 잘 알아서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할 때 그 마음이 한울님의 마음이 되어 밖의 기화에 응하여 세계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인간 안에 신령으로 작용하는 한울님의 지기는 유일신의 전지전능한 힘보다는 오히려 ‘무아’와 ‘연기법’의 진리를 통해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 부처님의 깨달음에 보다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학과 불교가 모두 자아의 극복을 목표로 하여 다른 사람 및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일원적인 상태에서 그 궁극적 구원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29) 『동경대전』, 『수덕문』.

또한 수행법에 있어서도 지극한 정성과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동학은 물론이거니와 팔정도를 비롯하여 보다 조직적이며 복잡한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교도 무아와 연기의 가르침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정, 정념 등의 철저한 마음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둘 다 마음을 닦는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동경대전』, <http://www.chondogyo.or.kr/book/book1.html>.
『용담유사』, <http://www.chondogyo.or.kr/book/book34.html>.
『해월신사법설』, <http://www.chondogyo.or.kr/book/book3.html>.
한글동경대전, 동학연구원 역, 도서출판 자농, 1991.
천도교백년약사, 천도교 중앙총부 편·발행, 1981.
-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이슬람력 1422년.
<http://www.quran.or.kr/Korean%20Quran.pdf>.
- 김경재, 「종교적 입장에서 본 현도 100년의 천도교」, 천도교 현도100년 기념학술대회, 『동학 학보』제10권 제1호. 동학학회. 2006.
김지하, 「모심. 고리. 살림」, 『신인간』, 12월호 (통권652호), 2004.
김 철, 「쉽게 풀이한 동경대전」, 『신인간』, 623-626호, 2002.
스마트, 니니안, *Worldviews*, 김윤성 옮김, 『종교와 세계관』, 서울: 이학사 2000.
오강남, 『세계 종교 둘러보기』, 서울: 현암사 2003.
오문환, 「동학의 천주관」(상)/(중)/(하). 신인간 144년 5월호(통권633호)/6월호/7월호. 2003.
오토, 루돌프, *Das Heilige*, 『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1.
윤석산, 『동학 교조 수운 최제우』,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4.
이상학, 「도올은 종교의 참 메시지 모르는 철부지: 김용옥교수 논어강좌 비판」, 『월간중앙』, 2001년 3월호.
정혜정, 「불교를 통해 본 동학: 생명적 사유와 만물일체의 철학」, 홈페이지 innaecheon.com 상설강좌.
주선원, 「천도교의 영성」, 『신인간』, 637-639호.
- Rahula, Walpola. *What the Buddha Taught*. 2nd and enlarged ed. New York: Grove Press, 1974.
Robinson, Thomas A. & Hillary Rodrigues, *World Religions: A Guide to the Essential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6.
Smart, Ninian. *Worldviews: Crosscultural Explorations of Human Beliefs*.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95.

원고접수: 2009년 1월 29일 1차심사: 2월 2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한성자

① 전공: 불교학, 종교학 / 소속: 동국대학교 BK21 연구교수

② 관심영역: 불교학, 종교학, 한국의 신종교

③ 주요논저: A Study on the Doctrine of Il-Won of Won Buddhism in Relation with the Buddhist Doctrine of Dharmakāya and No-self; 여성의 출가와 성불을 통해 본 고(苦) · 무상(無常) · 무아(無我)의 이해; The Middle Path of No Abiding and No Leaving in the “Immutability of Things” by Seng-chao

④ E-mail: resu80@dongguk.edu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Hanulnim of Donghak and No-Self of Buddhism

Han, Sungja

BK21 Research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Donghak is a Korean religion established by Suwun Choi who experienced a mystic encounter with God, Hanulnim. Hanulnim is the Absolute Other which exists beyond human beings; the one and only God of all other monotheistic religions. In that sense Donghak has nothing in common with Buddhism which emphasizes realization through self cultivation while placing no weight on the grace of God. On the other hand, a new aspect of Hanulnim is observed in Suwun's exegesis on the 21-letter incantation. According to his explanation, Hanulnim works as Ultimate Energy while existing both inside and outside of humans, having no fixed substance and gaining strength only after having embraced others. It has an inherently human characteristic because it needs human assistance to produce achievements.

When Hanulnim works as Ultimate Energy, we can think of Donghak in relation to Buddhism. The Holy Spirit existing inside of humans can be compared to the concept of No-Self in Buddhism while the Energy existing outside of humans may be compared to the doctrine of Dependent Arising. When a Donghak practitioner overcomes the self oriented greed through the proper workings of the Holy Spirit and Energy, he resembles a Buddhist practitioner who clings to nothing through realization of the doctrine of No-Self and Dependent Arising. Emphasis upon mind cultivation is also common to both religions.

Key words: Hanulnim, the Absolute Other, Ultimate Energy, the Holy Spirit, Energy, No-Self, Dependent Arising, the self oriented greed